2023 autumn
동국대학교의료원보
vol.36

# gil

good in life

HEALTH

HAPPINESS

DUMC

# 길

Theme

## man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모든 것은 다 내게서 비롯됩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탓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탓이오, 하고 살면 편합니다.
순간적으로 참기 어렵겠지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또한 세상일입니다.
내가 둥글어지면 남도 둥글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좋은 건 다 네 앞에 있어〉 중에서
지은이 _ 성전 | 출판사 _ 마음의 숲

**발행인** 채석래
**발행처** 동국대학교의료원
**발행일** 2023년 9월 1일 (통권 36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대표전화** 1577 · 7000
**기획 · 편집 · 디자인** 동국대학교의료원 편집위원회

gil

## CONTENTS

2023
autumn
vol.36

### HEALTH

**05** Intro
당신은 어디쯤
달리고 있나요?

**06** Good Doctor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비뇨의학과 전문가

**10** Medical Theme 1
젊은 남성의 높은 발병률
크론병

**12** Medical Theme 2
90% 이상이 남성
통풍

**14** Medical Theme 3
남성 암 발생 1위
폐암

**16** Medical Theme 4
남성 갱년기와 삶의 질

**18** Medical Theme 5
간 건강을 위협하는
음주

**20** Korean Medicine
테니스 엘보의
치료와 관리

### HAPPINESS

**22** Memoirs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은 통합니다

**26** Essay
시골 버스에
가을이 타다

**28** Travel
게으른 여행자에게
주는 선물,
베르가모

**32** Book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 DUMC

**34** Focus 1
환자중심문화 만들기에
앞장서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38** Focus 2
경기 북부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운영

**42** Team
환자의 정상 생활
복귀를 위해

**44** News
동국대학교의료원 뉴스

**48** Together
나눔

**51** Schedule
진료 일정 안내

PART 1
HEALTH

Medical Theme
## 남성

당신은 어디쯤
달리고 있나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비뇨의학과 전문가

젊은 남성의 높은 발병률
크론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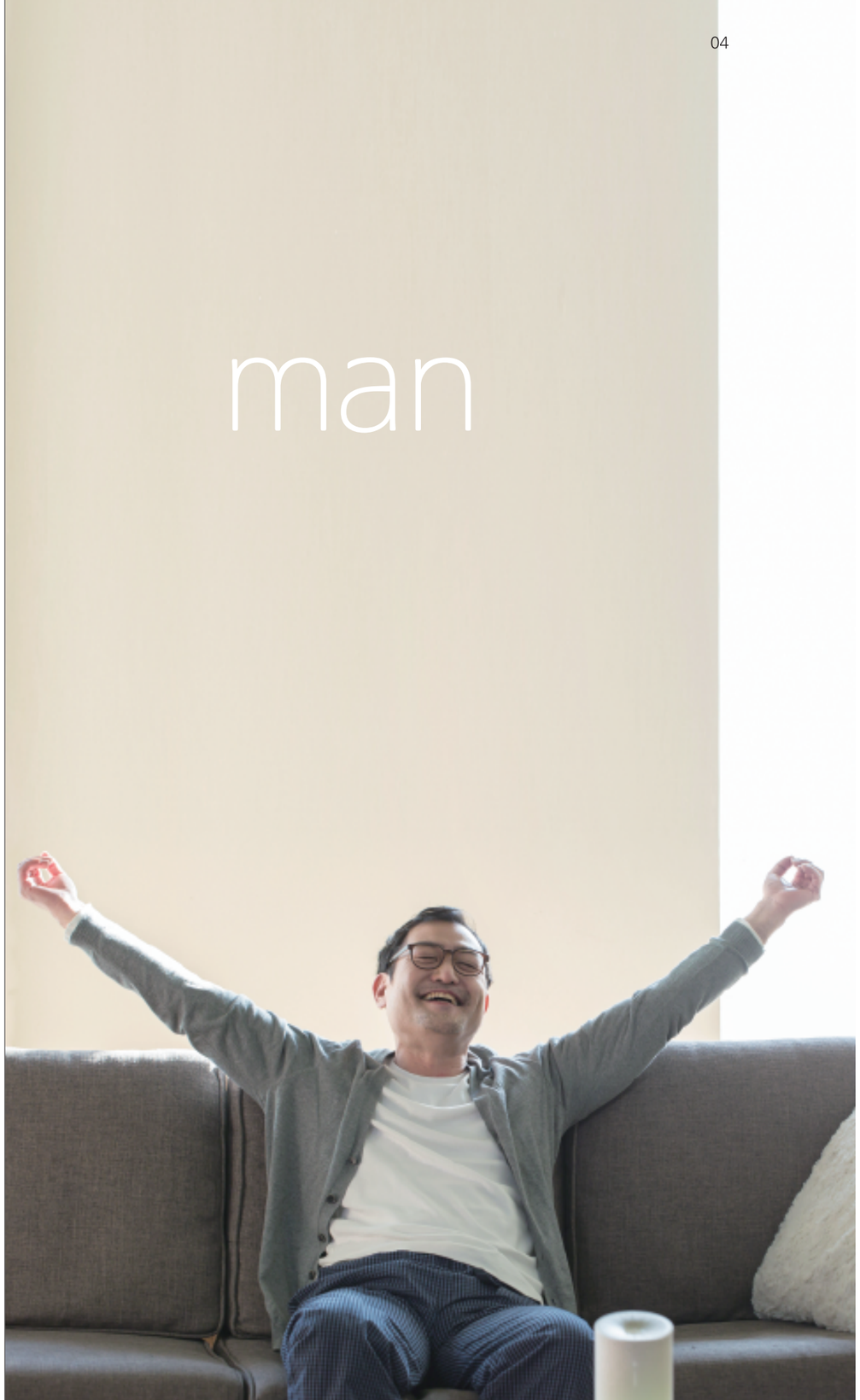
90% 이상이 남성
통풍

남성 암 발생 1위
폐암

남성 갱년기와
삶의 질

간 건강을 위협하는
음주

테니스 엘보의
치료와 관리








# 당신은 어디쯤 달리고 있나요?

남편이 옆자리에 앉아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사달이 났지요. 드라마라곤 거들떠 보지 않던 사람이
웬 바람이 분 건지. 보려면 집중을 하든지.
보는 듯 마는 듯하면서 질문만 늘어갑니다.
인물관계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야기 얼개도
이해 못하고 복선이란 건 애당초 해석 불가능이지요.

'저 사람 왜 울어?' '저 집 딸 아니었어?'
뜨악한 질문 공세에 지청구를 해봤자 소용없으니
아예 대꾸를 안 하기로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혼잣말을 합니다.
"이해력이 점점 떨어져. 잘 들리지도 않고.
나 늙어가잖아.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좋겠어."
남편의 웃픈 고백에 실소가 터지고 말았네요.

모를 리가요. 나의 나이듦보다 먼저 보인 게
남편의 세월이었는 걸요. 새벽에 들어와 서너 시간
쪽잠을 자고도 출근시간을 놓치지 않던 사람,
'동물적 감각'이라고 자만할 정도로 순발력이
뛰어나던 사람, 하지만 이젠 일상이 살짝만 틀어져도
지레 부담스러워 하기 일쑤지요.
네비게이션 안내조차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길을 잘못 들어서는 일이 다반사고요.
머리, 어깨, 무릎, 발, 삐그덕대는 몸을 끌고 병원 문턱
넘나드는 날은 늘어만 가지요.

슈퍼노인증후군이란 게 있답니다.
바쁘고 생산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노년기 병리적 현상을 일컫는다지요.
슈퍼맨증후군의 노년 버전이라고나 할까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퇴직자들이 퇴직 전
미리 준비하지 못해 후회되는 것으로 재정관리,
퇴직 후 일자리, 건강관리 순으로 답했다네요.
앞만 보고 열심히 내달려와서는 도착점에서
다시 달릴 궁리를 해야 하는 거지요.

당신은 지금 어디쯤 달리고 있나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무거워 풀썩 주저앉고 싶은 건 아닌지.
도착지 없이 달려가고만 있는지.
지금처럼 자주 얘기를 해줘요. 힘겹다고,
나이 들어가고 있다고, 조금만 더 친절히 대해달라고,
슈퍼맨이 슈퍼노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너무 애쓰지 말고 천천히 걸어요.
이제껏 당신은 충분히 성실했어요.

#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비뇨의학과 전문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비뇨의학과
**윤 현 식** 교수

병을 잘 고치는 의사, 친절한 의사, 설명 잘해주는 의사.
환자들이 최고로 꼽는 의사의 조건일 것이다.
이런 조건을 두루 갖춘 의사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비뇨의학과에 있다.
운명처럼 이끌려 비뇨의학과를 선택했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환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 치료하는 이 사람,
윤현식 교수를 만나보았다.

### 중년남성의 고민, 전립선비대증

"전립선비대증은 남성이라면 나이가 들면서 거의 대부분 겪는 일입니다. 약물치료로 속도를 늦출 수 있으니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 남성들의 고민인 전립선비대증에 대해 비뇨기과 윤현식 교수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소변이 가늘어지는 대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치료받을 것을 권했다. 전립선은 한번 커지면 스스로 줄어들지 않는다. 하지만 약물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고, 약물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크기가 줄어들기도 해 조기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0g 정도 무게의 밤톨만한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하면 전립선 중앙으로 지나는 요도를 압박해 소변줄기가 약해지기 시작한다. 2차적으로 과민성방광이 동반될 경우 소변을 본 후에도 자주 마렵고, 갑자기 요의를 느끼며 실수하는 일도 벌어진다. 야간에 빈뇨가 발생하면 자다깨다를 반복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삶의 질이 저하되기도 한다. 전립선비대증은 꼭 나이 든 남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에서 40, 50대 젊은 남성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윤 교수는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전적 요인이나 가족력이 있을 때 젊은 나이에 발병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때로는 거대 전립선도 있다. 윤 교수의 환자 중 80대 환자는 전립선 무게가 정상 범주의 10배인 200g으로 자라나 있었다. 아예 소변이 나오지 않는 요폐 증상으로 내원한 사례였다. 혼자 꿍꿍 참다가 병을 키운 것이다. 비대한 전립선을 레이저로 잘라 제거해 치료했다. 윤 교수는 남성 노인 환자들이 대부분은 불편함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요폐가 반복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찾은 70대 환자는 그동안 개인병원을 다니며 이런저런 약으로 바꿔가며 치료를 받다가 효과를 보지 못하다 대학병원은 처음 방문한 사례다.

윤 교수는 "수술 후 소변보는 게 편해지셨는지 물으니 폭포수 같다고 표현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약물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 수술적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말로 표현 못할 통증, 요로결석

"요로결석은 3대 통증의 하나로 꼽힐 만큼 통증이 심하죠. 여성 환자분들은 산통에 버금간다고 표현합니다."

윤 교수는 요로결석이 성별에 상관없이 발병하며 최근 증가 추세라고 말한다. 식습관, 수분 섭취량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요로결석은 요로 어디든 생기며 통증, 출혈, 감염 소변 흐름 차단을 초래하는 단단한 돌덩어리다. 보통 신장에서 생기기 시작하고 요관이나 방광으로 이동할 수 있다. 겨울철에 비해 여름철에 발병률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윤 교수는 "특별히 무엇을 드시지 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름철 요로결석 발병률이 높은 것도 땀 배출이 많아져 소변의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이다.

그는 "요로결석은 통증이 심해서 죽을 병인 줄 알고 응급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결석을 제거하면 씻은 듯이 좋아져서 치료 만족도가 높은 질환 중 하나이니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최근 윤 교수가 만난 90대 환자는 혈압이 떨어져서 쇼크가 와서 응급실로 이송돼 왔다. 검사 결과 요로결석 때문에 신우신염과 패혈증까지 온 상태였다.

통증이 꽤 되었겠지만 지병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라 위급한 상황까지 가게 된 안타까운 케이스였다. 이 환자의 경우 내시경으로 수술해 완쾌되어 귀가했다.

흔히 요로결석의 합병증으로 급성신부전이 오거나 요로감염으로 신우신염이 오기도 한다. 보통 결석이 5mm 이하면 통증을 조절하면서 기다리는 대기요법을 쓴다. 5mm 이상이면 체외충격파 쇄석술(돌을 깨뜨려 쉽게 자연배출 되도록 유도), 내시경적 결석제거술(직경 3mm 정도의 내시경을 요로를 통해 넣어서 레이저로 결석을 분쇄해서 배출) 등의 방법을 쓴다. 꺼낸 결석은 성분을 분석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조언해드린다.

윤 교수가 다루는 분야는 요로결석, 전립선비대 외에도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같은 비뇨기 암까지 폭넓다. 전립선암과 신장암은 수술로봇인 '다빈치Xi'를 이용해 로봇수술로 진행한다. 로봇수술은 일반 복강경 수술에 비해 적게 절개해 회복이 빠른 것이 장점이다. 또한, 카메라 배율이 높아서 화질이 선명하며 10배 확대가 가능해서 작은 조직과 구조물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고 관절이 자유롭게 회전해서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윤 교수는 "전립선암 수술을 개복수술로 하면 2주 입원하지만 로봇수술로 하면 1주일 입원으로 끝나서 환자들이 선호한다"고 했다.

###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윤 교수는 운명처럼 비뇨의학과에 끌렸다고 했다. 내시경, 복강경, 현미경, 로봇 등을 이용하여 미세수술부터 암수술까지 다양한 수술을 시행하는 분야라는 것에 끌려 망설임없이 선택했다. 지금도 새로운 정보를 찾고, 연구하고, 수술법을 연구하는 과정이 재미있다고 한다.

"내 가족이라면, 나라면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가 고민하고 결정한다"는 윤 교수. 그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기에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다.

환자가 최대한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의사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교과서적인 진료, 원칙에 입각한 진료를 추구하는 윤현식 교수는 의사가 천직인 사람이었다.

글 이명혜 기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비뇨의학과 **윤 현 식** 교수

**전문진료분야**
요로결석(내시경 레이저수술), 전립선비대증(흘렙수술), 비뇨기종양(로봇수술), 남성과학(정계정맥류, 정관복원술), 소아비뇨, 배뇨장애

**경력**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인턴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전공의
·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임상강사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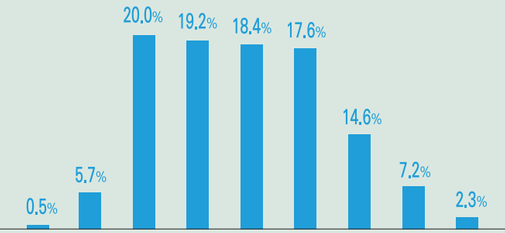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건강 정보 1

**20대** (20.0)%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연령대 (2020년 기준)

**5.8%**
연평균(2016~2020년) 환자 수 증감률

**남성** (61.7)%
성별 환자 수 비율 (2020년 기준)

최근 5년간 환자 수 현황 (단위 : 만 명)




전체 환자 수 대비 연령별 비율 (2020년 기준)

## 젊은 남성의 높은 발병률

# 크론병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음식물이 통과하는 위장관 전체를 침범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원인 모를 이유에서 자기 면역이 과다하게 활성화되어 위장관 조직의 염증을 일으킨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성 질환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 유전이 되는 유전성 질환도 아니다. 크론병은 완치가 되지 않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나 잘 치료하면 일정 기간 동안 완전 관해에 도달할 수 있고 증상 없이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질환이기도 하다.

크론병은 소장에 염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병이다.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되기 쉽고 골다공증, 빈혈 등이 동반될 수 있다. 크론병 환우의 영양 관리는 중요하다.

크론병을 진단받으면 국민보험공단의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환자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증상

크론병의 주 증상은 복통, 체중 감소, 설사, 전신 피로감 등이며, 주로 10~20대의 젊은 연령에 발생하여 이때 발병하면 성장 지연이 될 수 있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장관 협착, 누공, 천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므로 조기에 진단하고 잘 치료 받아야 한다. 혹, 항문 농양, 누공 등의 항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크론병이 아닌지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한다. 크론병은 위장관에 생기는 병이지만 장외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관절 통증, 관절염, 다양한 피부 질환, 구강염, 궤양, 포도막염과 같은 안구 질환이 생길 수 있어 장외 증상이 생기면 해당과 진료를 볼 때 의사에게 크론병 병력과 현재 투약하고 있는 약제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

### 원인

크론병의 발병에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그 병인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완치할 수 있는 방법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다. 주로 서구 선진국에 흔한 질환으로 동양에는 매우 드문 질환이었으나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 크론병의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진단

크론병의 진단은 말단회장과 전체 대장, 항문을 관찰하는 대장내시경으로 한다. 대장내시경만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 소장을 잘 관찰할 수 있는 MR 또는 CT 소장 조영술, 소장 캡슐내시경 등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대변의 염증수치를 반영하는 검사, 혈액 검사 등이 진단에 도움을 준다. 소장 캡슐내시경을 잘 활용하면 조기에 소장 크론병을 진단할 수 있고 소장 크론병의 경과를 민감하게 잘 알 수 있다.

### 치료

크론병의 치료는 메살라민,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 약물 치료가 근간이 되며 최근에는 인플리시맵, 아달리무맵, 베돌리주맵, 유스데키누멥 등 많은 생물학적 제제가 개발되어 허가 받아 사용되고 있다. 약물 치료에 실패하여 장관의 누공, 농양 등으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수술을 해도 남은 장에서 염증이 지속될 수 있어 가능하면 수술을 피해서 환자의 장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의 복용 특히,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약물 치료는 크론병의 중증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하고 환자의 증상 뿐 아니라 객관적인 검사로 확인하여 약물의 용량, 투약 기간을 결정한다.

감기에 걸리면 비스테이드성 항염제를 처방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약제는 크론병을 악화시킬수 있어 피하고 대신 타이레놀을 진통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감염성 위장염이 쉽게 걸릴 수 있어 익히고 깨끗한 음식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비상약으로 퀴놀론, 메드로니다졸 등 항생제를 가져가는 것이 좋은데 담당 의사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끊어야 할 약제, 추가적으로 복용할 약 등이 있을 수 있어 담당 의사와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다.

식사관리는 크론병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는 특히, 섬유질이 많은 음식, 채소, 견과류, 잡곡류는 피하고 흰쌀밥 등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거나 부족한 영양분, 열량 공급을 위해 경관식에 이용되는 액체 음료를 대용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윤정** 교수

**전문진료분야**
식도 · 위 · 대장질환, 소화기암(식도암, 위암, 대장암), 위장관 운동질환

통계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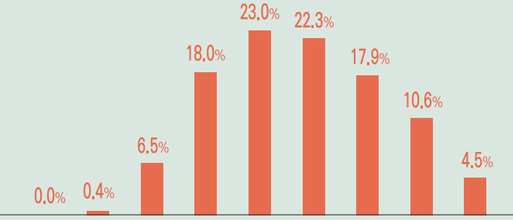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건강 정보 2

**40대** (23.0)%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연령대
(2020년 기준)

**5.8%**
연평균(2016~2020년) 환자 수 증감률

**남성** (92.6)%
성별 환자 수 비율
(2020년 기준)

최근 5년간 환자 수 현황 (단위 : 만 명)



전체 환자 수 대비 연령별 비율 (2020년 기준)

## 90% 이상이 남성

# 통풍

### 원인

통풍은 퓨린 대사 이상으로 혈중 요산 농도가 높아지고 요산결정이 관절에 침착되어 염증이 발생하는 만성 대사질환으로, 고요산혈증의 발생, 요산결정의 침착, 이로 인한 급성염증반응, 통풍결절에 의한 만성적 증상의 순서로 진행한다.

고요산혈증은 과다한 알코올이나 과당 섭취, 이뇨제, 저용량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신장질환이나 고혈압, 용혈질환, 건선 등의 질환에서도 동반된다. 고요산혈증이 지속되면 요산이 바늘 모양의 결정을 형성하고 관절의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고요산혈증이 있는 모든 사람에서 통풍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다.

### 증상

급성통풍관절염(또는 통풍 발작)은 발가락, 발목, 무릎에 주로 발생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1주 정도 지속되고 통증이 매우 심하다. 관절의 부종과 발적이 동반되며, 밤에 잘 발생하고 심한 통증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2시간 이내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유발 요인 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외상, 알코올, 과식, 혈청 요산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약제 등에 의해서도 유발된다.

급성기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 발작까지 무증상기가 지속되는데, 치료하지 않는 경우 급성기가 길어지고 발작이 잦아지게 된다. 무증상기에도 통증과 관절 변형이 지속되어 만성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다.

통풍결절이 동반된 상태를 만성결절통풍관절염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요산 농도가 조절되지 않고 유병 기간이 긴 경우에 통풍결절이 발생하며, 요산저하제를 사용하면 크기가 줄어든다.

통풍과 관련되어 요로결석, 요산신병증 등의 신장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통풍은 고혈압, 만성신질환, 이상지질혈증, 비만, 당뇨병,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질환과 연관성이 있으며 고요산혈증은 심혈관 질환과 신장질환의 위험인자이다.

### 치료

통풍 발작이 시작되었다면 안정을 취하고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 콜히친, 글루코코티코이드 등의 약물을 사용하여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얼음찜질도 도움이 된다. 이들 약물은 발작이 시작되자마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으므로 통풍 환자는 상비약을 가지고 있도록 해야 한다.

급성 발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통풍에 의한 증상을 조절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고요산혈증을 치료하는 요산저하치료로, 혈중 요산 농도를 낮춰 요산 침착을 예방한다. 요산저하치료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발작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발작이 발생하더라도 요산저하제는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발작 예방을 위해 콜히친 등의 약제를 사용한 저용량 예방 치료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다. 혈청 요산 농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요산저하제의 용량을 조절하면서 꾸준히 복용한다면 급성 발작을 예방하고 질병의 진행을 멈출 수 있다.

통계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통풍 발작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

- 과체중이라면 체중 조절이 도움이 된다.
- 과당이 많이 함유된 단 음료나 알코올은 통풍 발작을 악화시키므로 줄이는 것이 좋다.
-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한다.
- 퓨린이 많이 든 음식을 제한한 식단보다는 약제를 사용한 요산저하치료와 금주가 더 도움이 된다.
- 특정한 식단이 통풍에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과일과 채소,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과식은 피하도록 한다.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신장 질환 등 통풍에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은주** 교수
**전문진료분야**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통풍, 전신홍반루푸스

[참고문헌]
대한류마티스학회(2022) 류마티스학, 제3판. 파주: 군자출판사
UpToDate (2023) Patient education: Gout (The Basics). 2023.7.19. 검색, https://www.uptodate.com/contents/gout-the-basics

통계로 보는
건강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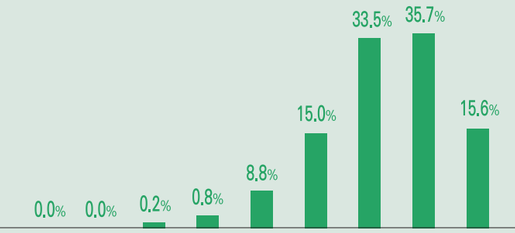
3

**70대**
(35.7)%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연령대
(2020년 기준)

**6.4%**
연평균(2016~2020년) 환자 수 증감률

**남성**
(62.1)%
성별 환자 수 비율
(2020년 기준)

최근 5년간 환자 수 현황 (단위 : 만 명)




전체 환자 수 대비 연령별 비율 (2020년 기준)

## 남성 암 발생 1위

# 폐암

암은 우리 몸의 세포가 사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질병이다. 여러 종류의 암이 존재하고, 이 중 폐에서 암이 시작되는 경우 폐암이라고 한다. 폐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0년 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폐암은 한 해 동안 총 28,949명이 진단되어 상대적으로 경과가 양호하다고 알려진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발병하였다. 특히, 이 중 2/3가 남성에게서 발생하였고 여성에게서도 발생자 수로 4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폐암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폐암의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수의 환자들이 폐암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 종류와 원인

폐암은 일반적으로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대표적으로 선암 및 편평상피세포암)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폐암의 종류에 따라 경과도 다르고 치료법 또한 다르다. 소세포암은 전체 폐암의 2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은 비소세포 폐암이다.

흡연은 폐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폐암은 간접흡연 혹은 석면이나 라돈과 같은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경우나 폐암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증상과 진단

폐암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폐암이 직접적으로 폐에 영향을 미쳐 기침이나 가슴 통증, 숨가쁨, 쌕쌕거림, 객혈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다. 반면, 폐암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진(전이된) 일부 사람들은 해당 부위에 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혹은 피로, 체중 감소와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폐암 환자는 암이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폐암의 증상은 다른 질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원인을 찾는 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폐암의 진단은 조직검사로 이루어지며 직접 조직을 떼어내는 수술, 피부 밖에서 바늘로 찔러서 조직을 얻는 경피적 생검, 내시경을 통해 폐 안쪽에서 조직을 얻는 기관지내시경 등이 있다. 최근에는 초음파 내시경의 발달로 많은 경우 기관지내시경을 통해 폐암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 치 료

폐암은 종류와 전이된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한다. 비소세포 폐암 환자는 수술, 항암 화학요법(세포 독성 항암치료, 표적치료, 면역치료), 방사선 요법 또는 이러한 치료법의 조합으로 치료한다. 소세포 폐암 환자는 진행 정도에 따라 항암 화학 요법을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방사선 치료와 병행한다.

각각의 치료에 대해 살펴보면, 수술은 암 조직을 잘라내는 치료법으로 전이가 되지 않은 폐암에서 완치를 목적으로 주로 시행한다.

항암 화학 요법은 주로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용한 치료를 의미하며 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특수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표적 치료는 암세포의 돌연변이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알약으로 복용한다. 최근에는 면역치료요법이 개발되어 우리 몸의 면역세포로 하여금 암세포를 없애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고에너지 광선을 사용하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하는 만큼, 폐암의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 의사, 항암치료를 하는 내과의사, 방사선치료를 하는 방사선종양학 의사 등 다양한 의료진이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 분야의 의사들이 함께 모여 치료법을 논의하는 다학제 진료 과정을 통하여 치료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호흡기내과
**김상혁** 교수
**전문진료분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결절, 폐암, 폐섬유화증, 폐렴/폐결핵

통계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남성 갱년기와 삶의 질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고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남성 노화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폐경과 동시에 급격한 노화과정을 겪는 여성과는 달리 남성에는 그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없으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화과정을 밟는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활력이 떨어지고 근육 및 뼈의 양은 줄어들며 지방양이 증가하는 체형의 변화를 보이는데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남성갱년기에 따른 현상으로 남성호르몬 감소와 연관이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남성호르몬은 30대 이후 1년에 1%씩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70대 노인의 평균 혈중 남성호르몬 수치는 젊은 성인 남성보다 35% 정도 더 낮다고 한다.

이러한 남성호르몬 감소에는 유전적 소인 외에도 체질량지수, 인슐린저항성, 식이, 스트레스 및 흡연 등의 생리적 요인과 급성 및 만성질환, 약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오랜 연구들을 통해 남성호르몬 감소가 인슐린저항성, 당뇨,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대사증후군을 야기하는데 관여하고, 발기부전, 심지어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치명적인 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40세 이상 남성의 64.9%에서 남성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Androgen Deficiency in Aging Male(ADAM) Questionnaire [표 1]은 간단하고 사용이 편리하여 주로 자가 진단용이나 선별검사로 사용된다.

**ADAM Questionnaire** [표 1]

1. 성욕감퇴가 있습니까?
2. 기력이 없습니까?
3. 체력이나 지구력에 감퇴가 있습니까?
4. 키가 줄었습니까?
5. 삶의 즐거움이 줄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6. 울적하거나 괜히 짜증이 나십니까?
7. 발기가 예전보다 덜 강합니까?
8. 운동능력이 최근에 떨어진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9. 저녁식사 후 바로 잠에 빠져 드십니까?
10. 일의 수행능력이 최근에 떨어졌습니까?

1번 혹은 7번 질문에 '예' 또는, 그 이외의 다른 3개 항목이 동시에 '예'인 경우 남성갱년기를 의심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경우 남성갱년기에 대한 검사를 해볼 수 있으며, 남성호르몬 외에도 성 기능 및 전립선 비대증과 하부요로증상, 골밀도, 비만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 등에 대한 검사들도 필요하다. 남성갱년기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증상과 남성호르몬치의 저하가 함께 있어야 한다.

남성갱년기의 임상 증상들은 노화와 유사하고, 이러한 증상들에 대한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을 함으로써 중년 및 노년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남성갱년기 증상이 있으면서, 남성호르몬 수치가 기준치 이하인 경우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의 금기증으로는 심한 하부요로증상을 가진 전립선비대증, 수면 무호흡증, 적혈구 증가증 등이 있으며, 보충요법을 시행 시 간 기능, 지질 기능, 전립선, 기분, 혈액학적, 골밀도,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생리적 감소뿐만 아니라 교정 가능한 가역적인 원인들에 의해서도 남성호르몬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금주, 금연 및 비만인 경우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저칼로리 식이를 통한 체중 감량이 남성호르몬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교정 가능한 원인들을 교정함으로써 남성호르몬의 투여양을 감소시키거나 필요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비뇨의학과
**박동진** 교수
**전문진료분야** ▶요로결석(신 · 요관 내시경수술), 전립선비대증(내시경절제술), 소아비뇨수술, 남성 성기능, 요로생식기감염, 일반 비뇨의학

# 간 건강을 위협하는 음주

사람들은 친목 도모, 스트레스 해소,
수면 등의 다양한 이유로 술을 마신다.
신석기 시대부터 인간이 음주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알코올의 역사는
오래되었다고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모임에 제약이 생기자,
혼자서 마신다는 '혼술', 집에서 마신다는
'홈술' 등 음주 문화의 트렌드가 변했다.
방역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는
각종 모임이나 회식이 재개되면서
술자리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나친 알코올 섭취는 여러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각종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질환이 알코올성 간질환이다.

간은 몸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장기이며,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 불린다. 다양한 물질들을 흡수, 대사,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도 한다. 과도한 알코올은 간세포에 지방을 축적시키고, 알코올의 대사산물은 간세포를 손상시켜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다. 술을 자주 많이 마시게 되면 손상된 간세포가 재생될 시간이 없고 체내의 영양 부족 상태를 초래하여 간질환으로 진행한다.

알코올성 간질환은 지방간, 간염, 간경변증 및 간암 등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는 질환군이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과음하는 사람들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병인데, 금주를 하는 경우 대부분 정상 간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알코올성 간염이 발생하면 간섬유화로의 진행이 흔하고, 오랜 기간 간염이 지속되면 많은 경우 간경변증으로 진행되고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시는 술의 종류나 방법에 따라 간 손상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몸에 좋은 술'이라며 특정 주종을 괜찮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알코올 간질환의 발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섭취 알코올의 양과 횟수인데, 성별이나 개인에 따른 차이가 크며 유전적인 요인이나 영양 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보통 특정 술에 맞는 잔에 그 술을 따랐을 때 한 잔에 담긴 알코올의 양을 10g 정도로 생각한다. 일주일에 남성은 210g, 여성은 140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간질환으로 이행될 확률이 높다. 즉, 의미 있는 음주량은 대개 주당 남성에서 21잔, 여성에서 14잔 정도가 된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 불린다. 간질환이 있더라도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진행된 상태인 간경변증이나 간암일 가능성이 있다.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증상은 거의 없는데 간혹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의 둔한 통증이나 피로를 느낄 수도 있다. 대부분은 간기능 검사나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우연히 알게 된다. 따라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병원을 방문하여 기본적인 진찰과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상복부초음파 검사 외에도 CT, MRI, 간섬유화 스캔 등의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다.

알코올성 간질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주이다. 특히 진행된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에서는 안전한 음주의 범위가 없으므로 단주가 필요하다. 영양 부족 상태에서 술로 인한 간 손상이 더 심해지므로 식사도 거르지 않아야 한다.

금주가 어려워 절주를 먼저 시도한다면 최소 2~3일에 하루는 간을 쉬게 하고 술을 마실 때 물을 충분히 마시며 달고 기름진 안주는 피하도록 한다. 술을 끊는 데에는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가족, 동료, 의료진의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금주가 어려운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치료를 병행하거나, 알코올 치료 상담기관 또는 금주 동호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조혜기** 교수
**전문진료분야**
간질환
(지방간, 간염, 간경변증, 간암)

한방
韓方

# 테니스 엘보의 치료와 관리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 실내 활동보다 실외에서 테니스나 골프를 취미로 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팔꿈치 통증으로 병원에 치료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손목의 신전근을 잘못 사용하여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테니스 엘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테니스 엘보의 정확한 병명은 '외측상과염'인데 손목을 뒤로 젖히는 신전근에 지나친 부하가 가해지거나 반복해서 무리하게 사용할 때, 팔꿈치 부위의 힘줄에 미세 손상이 생겨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테니스 엘보는 테니스, 골프, 배드민턴 등 라켓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흔히들 발생하지만,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화가, 요리사, 목수나 집안일을 많이 하는 주부나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흔하게 나타난다.

팔꿈치 부위 힘줄은 근육 끝에 붙어 있는 탄력이 떨어지는 조직으로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할 때 쉽게 손상을 받게 되는데, 잘못된 동작이나 과도한 근육 사용으로 근육과 연결된 힘줄이 뼈에 부착된 부위에 미세 파열과 같은 손상이 생긴 후, 휴식이나 적절한 치료 없이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미세 손상된 힘줄의 조직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여 더욱 탄력이 떨어지며 증상이 반복적으로 악화하는 것이다. 또한 통증으로 인해 근육이 지속해서 수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힘줄은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통증의 악순환 고리에 갇히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팔꿈치 통증 부위에 자락술을 시행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조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통증 부위에 전통 침자법 중 하나인 합곡자를 이용한 침치료를 시행하여, 통증으로 인하여 지속해서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는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힘줄의 과부하를 감소시켜, 힘줄이 휴식하고 미세 파열된 조직이 정상에 가까운 형태로 재생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통증이 심할 때는 운동이 오히려 힘줄에 부담을 주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일정 기간 휴식기를 가져야 한다. 이때, 얼음 마사지를 통해 염증을 감소시켜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테니스 엘보에 적절한 얼음 마사지는 얼음주머니를 환부에 올려놓는 얼음찜질과는 달리 얼음 조각을 가지고 통증 부위를 원형으로 문질러 주는 것인데, 이는 국소 부위 온도를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냉각시켜 염증과 부종, 통증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1~2분 마사지 후 30초 휴식하였다가 다시 1~2분 마사지 하는 것을 15분에서 30분간 반복하면 된다.

테니스 엘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테니스나 골프의 스윙 자세를 바꾸거나,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특히 컴퓨터를 많이 사용할 때는 키보드나 마우스의 손목 보호대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손목을 뒤로 젖히는 신전 동작을 최소화해야 한다.

테니스 엘보는 염증과 통증이 심할 때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염증이 줄어들고 통증이 감소하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운동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안전하고 좋은 운동으로 등척성 운동을 추천할 수 있다. 등척성 운동은 근육의 수축은 일어나나 근육의 길이나 관절의 각도가 변하지 않는 정적인 운동으로 운동 상해의 위험이 적어 재활치료에 흔히 활용되는 방법이다. 테니스 엘보에 적절한 등척성 운동은 팔꿈치를 90도 굽힌 상태로 옆구리에 붙이고 벽면에 어깨를 닿게 옆으로 선 상태에서 손등을 벽면에 닿게 하여 팔꿈치를 중심으로 손을 밖으로 회전하듯이 손등으로 벽면을 힘주어 미는 자세를 10초간 유지하고 5초간 휴식하는 동작을 15회 가량 반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등척성 운동을 통해 근육에 무리를 주지않으면서 근육을 강화시키고 힘줄을 탄력있게 만들면 테니스 엘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침구과
**이승덕** 교수
**전문진료분야**
척추질환(허리, 목), 관절질환(어깨, 무릎, 턱), 안면신경마비

PART 2
HAPPINESS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은 통합니다

시골 버스에
가을이 타다

게으른
여행자에게
주는 선물,
베르가모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일러스트 키 큰 나무

#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은 통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임윤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진료과를 선택해야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한 검사와 진료를 보자는 마음으로 피검사, 위/대장 내시경을 받아보기 위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화기 내과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몸 상태와 가족력이 있는 병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갑상선 수술을 2번이나 하시고, 당뇨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큰누나도 갑상선 수술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간단한 검사부터 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으니 내분비내과로 가서 갑상선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유받아 진료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소화기내과에서는 간단한 선종이 생겼다하여 시술을 받고 치료하였으나, 내분비내과 검사에서는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결절의 모양이 좋지 않아 보여 추가로 세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심란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고 드디어 진료 날, 담당 교수님은 제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갑상선암은 6단계가 있는데 4단계부터는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3단계이기는 하지만,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물론 모양만 나쁘고 암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차피 3단계이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이가 젊을 때, 증상이 없이 빨리 알았을 때 수술을 권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난 후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더 자세한 검사가 있는데 환자분이 수술이 고민되면 그 검사를 받아봐도 좋으나, 검사 결과에서 3단계가 나와도 수술을 권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수술을 해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맞는 건지 시간을 더 두고 나중에 해야 하는지 한참 동안을 고민한 끝에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막상 수술을 결심하고 나니 이제는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다', '예후가 좋다'라고 해도 어쨌든 '암'이라는 단어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책임져야 할 어린 두 딸과 아내가 있고, 큰딸은 몸이 좋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였기에 주변의 모든 일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나라 명의, 다큐, 책, 인터넷 등 갑상선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몸을 쉽게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료를 받았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임윤성 교수님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고의 명의, 잘하는 병원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암센터, 서울 유명 병원 등 여러 병원을 알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점점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지 못한 채 고민만 하던 중 제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저에게 "잘 생각해 봐. 여기 교수님이 서울대병원 가서 수술하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한 거고 동국대병원 선생님이 암센터 가서 수술하면 암센터에서 수술한 거야. 그냥 병원 이름만 다른 거지 어디서 수술하던 환자만 의사랑 잘 맞으면 되는 거야. 병원만 좋으면 뭐해? 얼마나 환자를 마음으로 잘 돌봐주고 잘 치료해 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계속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그때마다 회사에 휴가 쓰고 그 먼 서울 길을 가는 것도 힘들거고…"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아내 말을 듣고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다 잘 됐었거든요.

수술 날짜가 10월 10일로 잡혔습니다. 임윤성 교수님은 저를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긴장한 저를 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술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 아침에 병실로 오셔서 잠은 좀 잤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자세하게 물어봐 주시고 세심하게 살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실에서 뵙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웃는 모습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서비스 업종에서 근무를 하고 저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윤성 교수님은 언제나 항상 웃는 모습과 진심이 담긴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오전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오후에 병실에 올라온 후 교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역시나 웃으시면서 "좀 어떠세요? 수술은 정말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술 부위를 열어 보니 갑상선암이 맞고 임파선까지 전이가 돼서 거기까지 수술을 잘 했습니다."라며



수술 방법, 부위, 모양 등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교수님은 환자를 자기 가족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보러 간 날 임윤성 교수님은 여느 때와 같이 웃으면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아프거나 불편한 곳은 없었는지 물어보시며, 수술 부위도 소독해 주시고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약은 어떻게 먹으면서 조절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질문하는 것마다 귀찮은 내색 없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희 같은 환자들은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질문도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물어보는 것마다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더 궁금한 게 있는지까지 물어보실 정도로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보고 있는 지금까지도 교수님을 볼 때마다 환자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임윤성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을 잘 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환자와 의료진의 소중한 인연

무사히 치료를 잘 받으셨고 경과도
아주 좋은 상태이셔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환자분께 갑상선암의 치료에 있어 나쁘지 않은
치료 경험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경과가 양호한 갑상선암이라 할지라도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많은 생각이
교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수술 등을 포함한 치료를
고민하고 권해야 할 때 제 가족이라면
어떤 종류의 치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분들께 안전하고 제일 효과적인
치료를 전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려주신 글에 감사드리며 환자분의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기원합니다.

염화미소
拈華微笑
**성전스님**

# 시골 버스에 가을이 타다

산골 작은 암자에서 법회를 마치고, 예약한 버스를 타기 위해 신도님의 차를 얻어 타고 길을 나섰다. 버스 시간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암자에서 출발한 승용차가 대로에 나가는 순간, 여유는 다급함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다. 일요일인 탓에 차들이 제법 도로를 메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운전하는 분이 차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급하게 운전하는 분을 향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고 말했다. 그리고 예약돼 있던 버스표를 취소했다. 그제야 운전하는 분도, 뒷좌석의 나와 나의 도반 스님도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는 대신 진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렸다. 운전해 줬던 신도님 부부는 떠나고, 도반 스님과 나는 목적지까지 가는 차표가 없어 인근 함양까지 가는 완행버스에 몸을 실었다. 정말 오래간만에 타보는 완행버스였다. 국도를 따라가며 인적 없는 정류장에서도 꼭 서야만 하는 버스. 고속버스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것이 느껴졌다. 시작과 끝만 있는 고속버스에 비해 고개를 돌고 들을 지나 구불구불 가는 시골버스는 얼마나 인간적인가. 과정이 생략된 고속버스보다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시골버스에 대한 기대가 그날따라 뭉글뭉글 솟아올랐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버스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검게 타고 이마엔 주름이 역력한 시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등산복 차림의 사람과 이국의 노동자가 올라탔다. 이국의 노동자가 옆자리에 앉자 카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인도 사람인가? 나는 그의 나라와 그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들을 가만히 상상해 보았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을 떠나와야 했고, 이곳에서 거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는 순간이면 그 고됨을 잊던 착한 표정이 눈물처럼 투명하게 그려졌다. 살아야 하는 것이 힘든 조건이 돼 버린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삶은 여전히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가 국도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높은 교각 위에 세워진 고속도로를 올려다보며 시골버스는 국도를 따라 순하게 달리고 있었다. 지척에 피어 있는 코스모스가 산들바람에 투명하게 흔들렸다. 정답다. 꽃들의 전송을 받으며 이 길 위에서 나는 가을의 정의 하나를 만났다. '가을은 착하다'. 이 버스 안에서 그리고 이 길 위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삿된 것은 없다. 농사를 짓고, 이국에 와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남을 속이고 해치는 짓은 어쩌면 사치인지도 모른다. 고되지만 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코스모스를 닮은 것만 같았다.

버스가 '원지'에 섰다. 이곳은 성철 스님의 생가인 '단계'가 멀지 않은 곳이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내려 강 건너 단계까지 걸어 다녔다고 한다. 가야산 해인사 호랑이. 스님의 기개는 가히 압도적이었다. 괄괄한 스님들이 법거량을 청할 때에도 그는 예외 없이 단숨에 제압해 버리고는 했다. 그의 대처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했다. '호랑이'라는 그의 별칭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열반에 드신 지 오래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살아 있다. 선객들은 오늘도 전설 같은 그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 문이 열렸다. 아무도 내리거나 타는 사람이 없다. 버스 기사가 외쳤다. "원지 내리실 분 내리세요?" 바람과 햇살만이 잠시 버스에 올랐다 내릴 뿐 인적 없이 버스의 문만 열렸다 닫혔다. 그 고요와 외로움. 곁에 앉은 스님이 말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날짜 가는 것을 몰라요. 그냥 찬바람 불면 긴팔 옷을 꺼내 입는 것으로 가을을 알뿐이죠." 원지와 가까운 곳이 고향인 스님의 그 말은 인적 없는 버스의 문 닫는 소리만큼이나 긴 쓸쓸함을 남겼다.

'누구는 너를 보고 그리움이라 한다
누구는 너를 보고 외로움이라 한다
꽃대가 흔들려서 그리움인가
꽃대가 가녀려서 외로움인가
(중략)
보라 늙은 농부가 위태롭게 경운기를 끌고 가는
어둑어둑 저문 들길을 꽃등 밝히듯
한 줄로 도열해 웃는 저 환한 눈망울을
억새풀 마른 가슴 적시는 새벽이슬처럼
삶의 상처가 너무 깊은 사람들의 마을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작은 갓길을 내고 있다.'

달리는 버스의 차창에서 나는 이광석 시인의 '코스모스가 핀 들길'이라는 시를 떠올렸다. 어쩌면 시골 버스와 버스 안의 우리 모두가 코스모스인지도 모른다. 코스모스처럼 우리 모두도 역시 외로운 마을에 닫을 수 없는 길을 하나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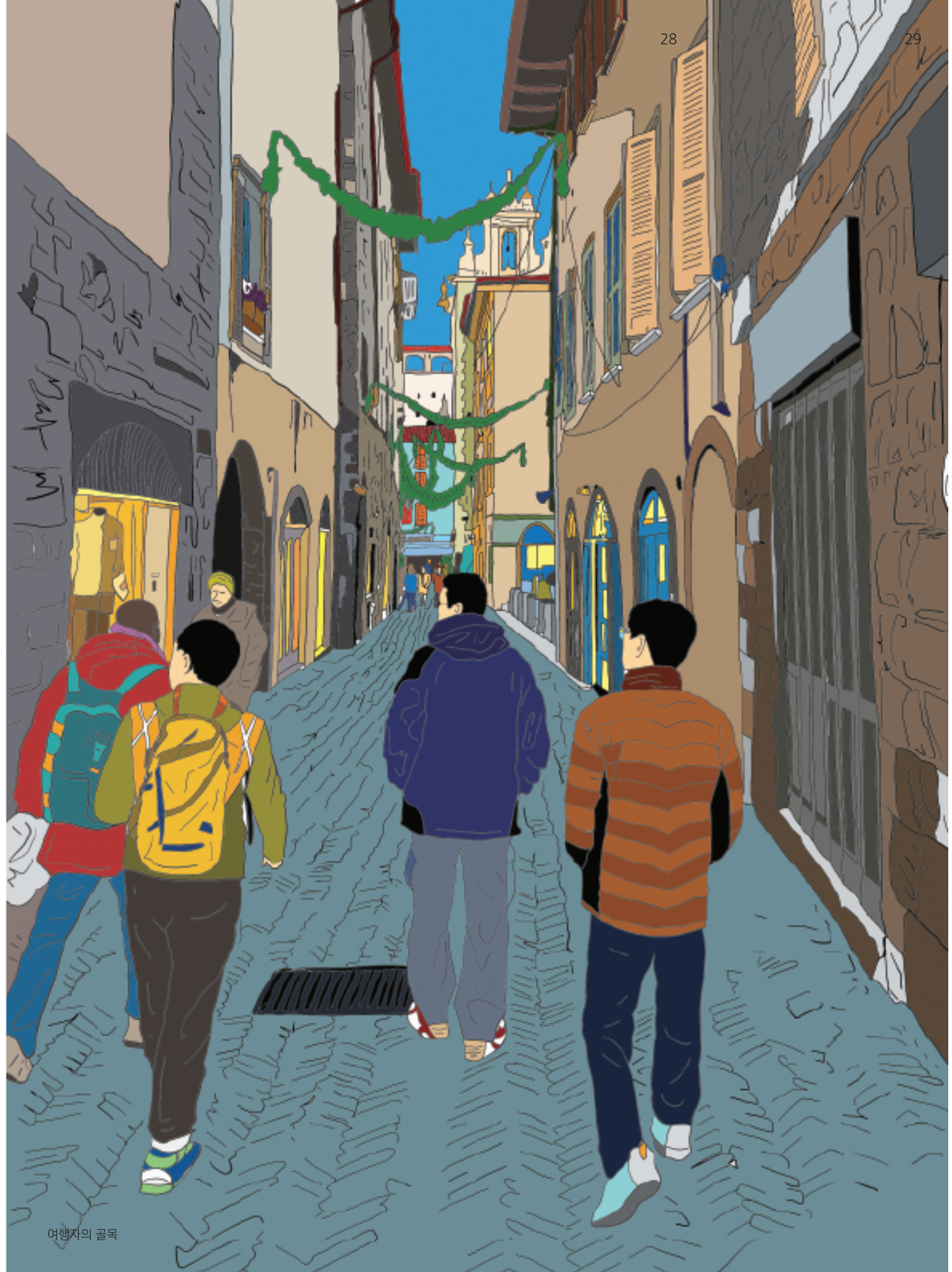
그날 버스 안에서는 모두가 가을이었다. 성철 스님도 촌로도 이국의 노동자도 그리고 등산객도 나와 나의 도반도 모두 가을이 돼 착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착하게 산다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있을까. 버스가 굽이진 국도를 달리고 코스모스가 환하게 손을 흔들었다.

글 **성전스님**

現 천안 천흥사 한주.
현재, 불교방송(BBS)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행복하게 미소 짓는 법〉, 〈빈 손〉, 〈비움, 아름다움, 채움〉,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좋은 건 다 네 앞에 있어〉 등이 있다.

여행을 그리다

Italy
Bergamo



여행자의 골목

글 · 그림 **배 종 훈**

낮에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밤과 주말에는 여행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느긋한 외로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출간도서〉 유럽을 그리다,
처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
마음을 두고 와도 괜찮아,
행복한 명상카툰 외 다수.

# 게으른 여행자에게 주는 선물

# 베르가모

#1

여행을 느긋한 산책처럼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대도시 외곽에 숙소를 정해야 한다. 베르가모, 생소한 이름의 도시지만 예정에 없던 곳, 약속하지 않은 사람, 계획하지 않은 일정이 만드는 설렘이 잊지 못할 여행의 즐거움 아닐까?

언제나 여행은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설레는 게 사실이다. 나는 이번 여행을 기다리면서 출퇴근길 자동차로 터널을 지날 때마다, 좁은 골목길의 모퉁이를 지날 때마다 재미있는 상상을 했다. 터널 너머, 골목길 모퉁이에서 내가 꿈꾸는 유럽의 어느 곳,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오래된 도시가 펼쳐지길 바랐다.

푸니쿨라에서 내리면 베키아 광장으로 향하는 마을의 골목길이 펼쳐지는데 여행 전에 예상한 바로 그곳이었다. 모퉁이가 궁금해지는 낡은 골목, 집집마다 걸린 화분과 장식, 오래된 나무 문들…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성당의 종소리는 유럽 여행에서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안겨주기에 충분한 도시였다. 이런 보석 같은 장소를 발견할 때마다 유럽의 골목길 여행이 주는 매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워낙 마을이 작아 비슷한 터널과 골목을 몇 번이나 지나쳤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 서울의 골목에서 내내 즐거운 상상에 빠져 있다가 그 끝에서 살짝 미소 지었던 그 설렘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 여기서 본 것과 닮은 작은 화분과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는 빵 굽는 냄새, 길가에 핀 들꽃 하나에도 가슴이 두근거릴 것 같았다.

시간을 건너는 터널

## #2

골목을 몇 바퀴나 돌았을까? 무릎이 뻐근해진 다음에야 베키아 광장으로 돌아왔다. 우아한 팔라초와 웅장한 성당, 종탑, 노천 카페로 둘러싸인 베키아 광장의 중앙에 콘타리니 분수가 앙증맞게 자리 잡고 있었다. 소박하고 평범해 보이는 이 공간이 베키아 광장의 아름다움의 정점이 아닐까? 하얀 대리석으로 조각된 사자상과 사람 머리로 장식된 스핑크스가 원형의 분수를 둘러싸고 있었다. 핸드폰 카메라를 켜 슬쩍 들어보니 광장 주변 기념품점에서 파는 엽서 사진이 그 안에 있었다.

콘타리니 분수는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파송된 베르가모 행정관의 이름으로 직무를 끝내고 베르가모를 떠나면서 이별 선물로 남긴 것이었다. 언덕 위의 고지대라 가뭄이 잦고 주민들은 물이 부족해 항상 고통을 겪었다. 당시 베르가모 사람들의 생명의 물이 된 분수가 이제는 베르가모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분수를 등지고 빙그르르 몸을 돌리면 아름다운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과 콜레오니 예배당을 동시에 볼 수 있다. 파란 잉크가 쏟아지는 하늘 앞에 성당은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다른 도시의 큰 성당이나 건축물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아기자기한 조형물과 한산함이 느긋한 여행을 즐겁게 했다.

한 낮의 광장

순간을 담다

## #3

예배당을 돌아보고 나오니 광장에 내리쬐던 햇빛이 누그러지고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어느새 짙은 색을 띠고 구름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안젤로 마이 도서관을 등지고 앉아 어둠이 다가오는 광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홀로 온 여행자 두세 명이 분수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타임랩스 사진처럼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은 시간 속에 나를 포함한 여행자들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여행이 풍성해지는 순간이었다.

이런 작은 도시는 분주하게 다닐 때는 오히려 마음에 담기지 않다가 가만히 멈춰 설 때 비로소 도시가 말을 걸어오고 스스로 자신의 속살을 가만히 내보인다.

## #4

치타 알타를 둘러싼 성벽을 빠져나오니 멀리 베르가모 평야와 치타 바사가 중세의 풍경화처럼 펼쳐졌다. 한참을 해가 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도시를 싸고 있는 외벽 길을 따라 다시 천천히 하부 마을인 치타 바사로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은 오를 때 남겨두었던 계단으로 된 골목길이었다. 골목에 어둠이 내리면 땅에 가까운 것부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기 시작한다. 지저분한 거리, 황량한 거리, 쓸쓸하고 서늘한 거리도 자신의 다리 부분은 어둠 속에 숨기고 얼굴에 불그스름한 빛을 받으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변한다. 골목이 가장 따뜻해지는 시간은 어쩌면 해가 지고 어둠이 허리까지 차오르기 전 30분이 아닐까? 이 순간, 이 골목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 안에선 반복되는 매일이 지루하고 벗어나고만 싶었는데 이국의 땅에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모습이 아름답고 행복하다니 내 줏대 없는 마음에 피식 웃음이 났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서 만난 구름에 가린 은은하고 환상적인 달빛에 가슴 어딘가에 불이 켜지는 기분이다. 누군가가 피아노로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했다. 하루뿐인 베르가모의 밤이 너무나 아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여행이 삶이라면

#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단숨에 읽어지고
즐겁게 깨치는
원영 스님의
불교 수업

불교 경전을 보다 보면 온갖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부처님을 찾아온다. 그 가운데,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여인이 한 명 있다. 바로 끼사고따미이다.

끼사고따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풍족하지 못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고생은 하였지만 다행히 부잣집의 좋은 청년을 만나 결혼을 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고된 시집살이 탓에 행복을 느낄 틈이 없었다. 하지만 아들을 낳은 뒤부터 끼사고따미는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다. 시집살이도 예전만큼 고되지 않았고,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의 사랑스런 모습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걸음마를 떼고 한창 재롱을 부리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것이었다.

애지중지하던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실성하다시피 한 끼사고따미는 아이를 다시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어느새 부처님까지 찾아오게 된다. 제발 아이를 다시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여인에게 부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건다. 어느 집이든 상관없으니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을 찾아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면 아들을 다시 살려주겠노라고 한 것이다. 끼사고따미는 정말 열심히,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며 묻고 다닌다.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끼사고따미는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었을까? 그 결말을 추측하는 건 어렵지 않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끼사고따미 역시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겨자씨를 찾아나선 것은 어째서였을까. 바로 마음 한켠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리 없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던 탓은 아니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과 그게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걸 '깨닫는' 것은 다른 일이니 말이다.

부처님이 아들을 잃은 끼사고따미에게 겨자씨를 구해 오라고 한 것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죽음'은 끼사고따미의 아들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언제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마음 깊이 깨닫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었으리라. 그리고 그런 부처님의 의도대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던 끼사고따미는 '무상(無常)'의 이치를 깨닫고 아들을 잃은 슬픔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 출가하여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하는 건 그 공부를 통해 내 삶이 변화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난 가르침일지라도 그걸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건 암기이지, 공부가 아니다. '아는 것'을 넘어 마음 깊이 깨닫고, 이를 자신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공부가 된다.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에서 원영 스님이 알려주는 불교가 그렇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한 상태로 이끌어주기 위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삼법인과 사성제, 팔정도, 연기, 중도, 바라밀 등에 대해 풀어주지만, 그간의 다른 불교책이

글 불광미디어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원영 지음

그러했던 것 같은 피상적인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끼사고따미의 이야기와 같은 경전 내용은 물론, 원영 스님이 보고, 듣고, 겪은 일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불교의 가르침은 친절하고도 다정하다. 이를 통해 스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삼법인과 연기를 공부하여 우리 삶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알고, 사성제와 중도를 통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해결법을 익혀, 팔정도와 바라밀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여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 단순하게 아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과 함께라면 불교 공부가 어려웠던 사람도, 불교를 이제 막 접한 사람도 모두 '불교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단박에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PART 3
DUMC

환자중심문화만들기에
앞장서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경기 북부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운영

환자의 정상 생활 복귀를 위해

DUMC NEWS

나눔

동심135와 함께

# 환자중심문화 만들기에 앞장서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최근 의료현장은 의료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돼 환자중심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간호사 △의사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등 총 6개 영역에서 환자경험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에 발맞춰 TFT를 구성하고 긍정적인 환자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매월 TFT회의 열며 시스템 구축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환자경험평가 TFT회의를 매월 열어 각 부문별 시행방안을 논의하며 자체적으로 환자경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매월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부서별 대응방안, 개선점 제안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회진 예정 시간을 사전에 고지하지만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진 알림톡'을 시행해 담당의가 출발할 때 알림으로써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있다. 회진 알림톡 발송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회진 우수교원은 시상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시스템화했다. 병실에는 회진 메모지가 비치되어 환자가 입원 중에 궁금한 것은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적어두었다가 의사 회진 시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

## 응대와 설명의 매뉴얼화

투약이나 환자 응대에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멘트를 체계화하여 매뉴얼화한 것도 눈에 띈다.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약물에 대해 투약카드를 만들어 보여주며 종류, 효능, 부작용을 설명하도록 모든 과정을 매뉴얼화했다. 환자가 듣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형화하고 놓친 부분은 없는지 교차점검하여 최대한 환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도록 준비했다.

간호사용 환자응대 요약집을 제작해 작은 표현의 차이가 큰 오해를 불러오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신체노출 보호 안내판'을 제작해서 커튼에 걸어두고 환자에게 반드시 물어본 후 커튼을 열도록 개선했다.

2

## 깨끗한 환경, 쾌적한 진료

코로나 이후로 청결과 위생에 민감해진 분위기를 반영하여 매월 병원 전체의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시설관리팀과 간호부팀장이 함께 돌아보며 청소와 안전 측면에서 시설을 관리한다.

일반 병실의 침대를 교체하고 페인트칠도 새로 해 깨끗한 분위기로 쇄신했다. 물품마다 교체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환자들의 위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침대를 우선순위로 교체했다.

1

## 공감과 소통

입원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진료부원장, PI실장, 차장, 교수, 원무팀장, 간호부팀장, 시설관리팀장이 참여하는 공감·소통 캠페인을 통해 민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환자들에게 민원과 불편함을 들은 후 아이디어를 내서 개선하는 과정을 거친다.

수간호사가 매일 병동을 돌면서 환자들의 투약, 병원생활 등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며 환자의 불편함을 듣고 해결하고 있다. 또한, 병실 담당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병실을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의료진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의사, 병동간호팀 등 보직별로 환자경험평가 특강을 실시하고, 환자경험평가 관련 직원용 포스터를 제작하고 화면보호기로 설치해 수시로 컴퓨터 화면에서 접하면서 환자중심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몸에 배도록 시각화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모바일앱에서 본인이 복용하는 약, 검사 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입원환자에게는 병원생활안내 책자를 배부해 회진시간, 불만사항접수, 프라이버시 유지, 투약, 검사, 처치, 입원 물품, 식사 배식 등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아 환자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환자중심의료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4

5

6

1. 공감·소통 캠페인
2.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신체노출보호 안내판
3.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 한 회진 알림톡
4.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회진 메모지
5. 종류, 효능, 부작용을 설명하는 투약카드
6. 편안한 입원 생활을 위한 병원생활안내

### 환자중심의료문화 함께 만들기 '2023년 4차 환자경험평가'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진은 긍정적인 입원 경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항상 그랬다(100점) 그랬다(67점) 그렇지 않았다(33점) 전혀 그렇지 않았다(0점)

**환자경험평가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중심의료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7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일반적인 환자경험평가에는 대략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간호사 영역** » 존중과 예의, 경청, 병원생활 설명, 도움 요구 관련 처리 노력
**의사 영역** » 존중과 예의, 경청,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
**투약 및 치료과정** » 투약/검사/처치 관련 이유 및 부작용 설명, 통증조절 노력,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 제공
**병원환경** » 깨끗하고 안전한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 공평한 대우, 불만 제기의 용이성, 치료 결정과정 참여 기회, 신체 노출 등 수치감 관련 배려
**전반적 평가** » 경험 종합 평가 및 타인 추천 여부

글 이명혜 기자

# 경기북부권역 유일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난임·우울증상담센터

##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

임신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출산, 그리고 난임 진단과 치료는 그 자체로도 큰 변화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일으켜
일상 생활과 가족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경기 북부권역 유일하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로 선정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임신이나 출산 등의 문제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여성과 그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북부 유일,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경기도 북부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수탁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경기북부권역센터로 최종 선정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와 산모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전국 출산율 및 가임기 여성 분포, 다문화 가정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경기북부 도민들의 상담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에만 위치한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이용하기에 지역적 한계가 있었다.

경기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어 실제로 경기북부의 많은 산모나 난임 부부들의 우울증 상담은 경기남부에 위치한 경기권역센터를 이용하기보다는 주로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경우 권역별 센터가 없는 모든 지역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경기북부 도민들의 상담 수요가 있더라고 상담 예약이 많이 밀려서 실제 상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교수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와 경기도 건강증진과에 지속적으로 경기북부권역센터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였고, 임산부의 우울증지원사업과 난임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국가정책 기조가 합의를 이루면서 2023년 7월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경기북부권역센터로 선정됨으로써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권의 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중앙센터 1개(국립중앙의료원)와 권역센터(경기, 인천, 경북, 전남, 대구) 총 6개로 운영됐다. 대부분 난임 전문의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상태이며, 임산부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 겸임 센터장이 맡게 된 경우는 전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중 경기북부권역센터를 운영하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유일하다. 상담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난임 부부가 높으나, 실제 고위험군은 임산부 및 양육모부부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기북부권역센터 센터장 김희선 교수는 경기북부 난임부부의 정신건강 지원 뿐 아니라. 임산부 및 다문화 가정의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전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임산부 및 양육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개발을 통해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균형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에 경기북부권역센터가 그 중심에 설 계획이다.

##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센터장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김 희 선** 교수

**전문진료분야**
고위험임신, 조산(조기진통, 조기양막파수),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쌍둥이 임신,
전치태반, 자궁경부무력증,
태아 선천성 기형 및 초음파 진단,
산전 유전진단

###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운영계획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위탁 경영하게 되는 경기북부권역센터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모체태아의학을 전공하는 김희선 교수가 임산부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고위험 내담자는 부센터장인 정신건강의학과 이남영 교수가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동국대학교 명상센터를 활용한 특화된 명상프로그램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과와 협의를 통해 한방난임지원사업과 연계한 홍보 및 난임부부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등 경기북부권역 유일한 센터인 만큼 동국대학교일산병원만의 전문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센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상담서비스는 사전 예약으로 내방과 방문을 통한 심리상담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며, 대면, 비대면(SNS, 전화상담 등) 개별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 2회 산림 숲체험 힐링프로그램과 월 1회 이상 원예치료, 문학·음악·미술치료와 같은 다양한 정서적 ·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더욱 많은 난임부부 및 임산부, 양육모 및 그 배우자들이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및 일대 수도권의 보건소,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산후조리원, 분만병원, 난임병원 등과 MOU체결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난임전문가(산부인과 윤상호 교수, 김란희 교수)와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난임전문가(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 외에 차병원, 일산백병원, 의정부을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의 각 분야 전문가를 본 센터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 뿐 아니라, 포천·가평·파주·문산·연천 등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경기북부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북부 내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셔틀 운영 및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경기북부권역 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들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경기북부 도민들의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기북부 거점센터로의 역할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 zoom in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2017년 6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6월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에 개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개의 중앙센터와 5개의 권역센터(경기, 인천, 전남, 대구, 경북)으로 운영되어 왔고 2023년 7월 개소한 서울권역센터(강남세브란스)와 2023년 9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개소하는 경기북부 권역센터까지 총 8개 센터에서 우울증 상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 환자, 임산부 및 양육모(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단, 미혼모의 경우 출산 후 7년 이내)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난임 환자, 임신부, 임신 중인 여성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모 및 양육모와 그의 배우자는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와 그의 배우자를 이른다(단, 미혼모의 경우 출산 후 7년 이내까지 대상자로 등록 가능). 또한 유산, 사산을 경험한 대상자도 포함한다. 기타 대상자에는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이다.

사업 목적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각 센터의 센터장과 부센터장으로 참여한다. 센터의 상근 인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구성되며 현재 각 센터의 상담 인력은 3인으로 상담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서비스는 등록 전 서비스와 등록 서비스로 구분되며 모든 대상자는 센터의 등록 전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등록 전 서비스의 시점에서는 정보제공 및 교육 위주의 일반 상담(단기 상담)이 이루어지며 선별 검사를 통하여 센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등록 기준은 선별검사 상 △정신건강 위험군(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결과가 10점 이상, △PHQ-9의 자살과 관련한 문항 9번에 '예'로 응답, △난임 시술기간 중 음주 경험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Consumption [AUDIT-C] 3점 이상 △흡연 경험 Fagerstrome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FTND] 4점 이상 △선별검사상 저위험군이지만 대상자 본인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한 번이라도 본 센터에 내소하거나 상담사가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진행한 경우에만 등록 상담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센터에 등록한 이후에는 전담 상담사가 지정되어 1대 1로 정기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의뢰하거나 의사 상담을 받도록 한다. 의사 상담이란 대상자의 정신병리가 의심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과거 자살 시도력이 있거나 현재 자살 충동 등 응급상황임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관리 유형으로는 집중관리와 유지관리가 있으며, 등록 후 최소 3개월 동안과 이후에도 월 1회 이상 대면상담을 할 경우 집중관리 대상자로 분류된다. 집중관리가 아닌 경우 유지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며 3개월에 1회 이상의 상담을 제공하도록 한다. 종결은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가 호전됨에 따라 센터 내의 사례 회의를 통하여 종결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진료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지역사회기관으로 연계하기도 한다.

# 환자의 정상 생활 복귀를 위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재활의학과의 재활치료하는 사람들

재활의학이란 각종 질병과 사고로 장애가 생긴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 가능한 정상에 가까운 또는 남에게 도움받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야이다. 재활의학이 필요한 대상자는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뿐만 아니라 각종 통증으로 인하여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에 지장을 받는 모든 환자가 포함된다.

재활의학 안의 재활치료 분야는 척추나 사지의 근골격계의 질환, 뇌졸중(중풍), 척수손상, 뇌성마비, 말초신경염, 근육병 등의 뇌신경 분야 질환,신경근육계 질환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의학과는 분야별 해당 과, 한방병원과의 협진 등을 통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첨단 진단 장비를 갖춘 근전도실, 초음파실을 운영하고, 전문화된 재활치료 서비스를 위해 성인운동 치료실, 운동 분석실, 자세치료실, 소아운동 치료실, 열전기 치료실, 성인작업 치료실, 소아작업 치료실, 일상생활동작 분석실, 재활언어 치료실 등으로 세분화하여 환자의 재활을 돕고 있으며 재활사회사업실을 운영하고 있다.

### 전문치료사가 팀 이뤄 최고의 역량 발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의학과는 의사(교수) 4명, 전공의 4명,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25명, 언어치료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보조원 1명 등 많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15년~25년 경력의 전문치료사 집단으로 환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최고의 역량임을 자부한다.

재활의학과 이호준 과장은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치료사 선생님들은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해서 가족 같은 분위기이며 비슷한 연령대가 많아 직원 사이의 유대감도 좋다. 팀의 분위기가 좋아 환자 응대에도 항상 활기차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고 한다.

재활치료실의 장호근 파트장은 “재활의학과에 입원 또는 통원 치료받는 환자분들 대부분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거나 치료받는다. 그래서 저희의 말 한마디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재활치료의 특성상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함께 대화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많이 지쳐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항상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도 위로를 담아 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애쓰고 있다.

글 이명혜 기자

### 눈빛으로도 통하는 사이

환자들에게 웃는 얼굴로 친절하려면 팀의 구성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기분이 좋아야 할 것이다. 재활의학과 재활치료 팀원들은 20대에 만나 40대에 접어든 치료사들이 대부분이라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하고 있기에 눈빛이나 행동만 보아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팀원이 너무 많아서 모두 모여 무언가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삼삼오오 취향 맞는 사람끼리 모여 운동을 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며 활력을 충전한다. 정기적으로 과 행사를 통해 등산하기도 한다. 재활의학과 특성상 장기적으로 치료받는 환자들을 많은 시간 곁에서 치료하다 보니 환자와 함께 의료진도 소진되는 경우가 있다. 팀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충전하며 환자를 친절하게 대할 에너지를 충전한다.

재활의학과에서 몸담는 모든 사람은 말한다.

“재활은 집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터널을 지나 이제는 좋아질 일들이 많습니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항상 웃음 띤 전문가로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따뜻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DUMC NEWS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 8년 연속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1등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87.6점으로 동일 종별 평균 78.8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 만성폐쇄성질환(COPD)의 올바른 표준 치료 시행과 질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종합점수와 평가등급을 매기지 않는 천식평가(2021년 7월~2022년 6월)에서도 각종 평가지표가 전체 평균과 종합병원 평균 점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점수를 받았다.

###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1등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병원급) 총 430개 의료기관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및 퇴원 시 기능평가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재원환자 및 퇴원환자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등 10가지의 평가 지표와 모니터링 지표를 종합점수로 산출해 등급을 분류했다.

그 결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종합점수에서 85.0점(전체평균 63.2점, 종별평균 77.8점)을 받아 정신건강 입원진료 서비스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 '2022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에서 30계단 도약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22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에서 2021년 평가보다 30단계 올라 중소형병원 순위에서 종합순위 2위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공의 총 1,984명이 참여하여 선정했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교육환경 ▲근로여건 ▲급여 ▲복리후생 ▲안전종합 5가지 세부 항목 중 '근로여건'과 '안전종합'에서 전공의 100~200명 동급 병원 중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병원으로 선정되었다.

###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 아미타불교요양병원과 업무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의료원과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는 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단 직영 요양병원인 아미타불교요양병원 발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아미타불교요양병원 발전을 위해 의료 및 전문 인력 운영 · 홍보에 관한 자문 역할을 맡기로 했다. 또한, 조계종 스님과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의 직원 ·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진료비 감면, 종합검진 감면 및 진료 편의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승려복지 대표이사 호산스님은 "오늘 협약을 통해 승려복지 활동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승려복지 활성화를 목표로 동국대학교의료원과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이 함께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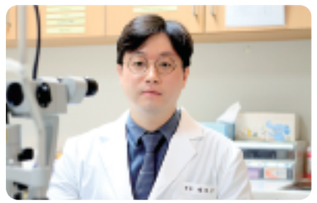
### LG화학 미래의학자상 수상

안과 양지명 교수가 제15회 LG화학 미래의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LG화학 미래의학자상'은 청년의사가 주관하고 LG화학이 후원하는 상으로 한국의학의 미래를 이끌어나가고 세계 의학의 선두주자가 될 젊은 연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제정됐다.

양지명 교수는 유리체망막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안과 의사이자, 한국 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에서 혈관생물학을 전공해 망막혈관 질환의 중개의학을 연구하는 의사과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제15회 LG화학 미래의학자상은 23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 양지명 교수 등 5명이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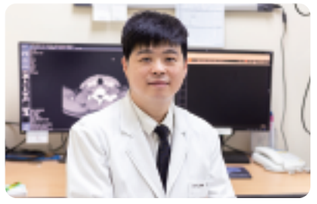


### 이비인후과 김보해 교수, 제일두경부외과 학술상 수상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김보해 교수가 6월 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제일두경부외과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보해 교수는 '미세유체 시스템을 이용한 구강점막 모사칩 내 항암제 유발 구내염의 구현' 주제로 발표한 과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제일두경부외과 학술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김 교수는 향후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내 의공학 교실 곽봉섭 교수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정형외과 임군일 교수, 세계골관절염 연구학회 회장 자격으로 심포지엄 주관

정형외과 임군일 교수는 스페인 류마티스학회와 세계 골관절염연구학회(SER-OARSI)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세계 골관절염 연구학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개회사 및 연제 발표를 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스페인의 라코루냐에서 열렸으며 '무릎관절 골관절염의 바이오마커와 정밀의학'의 주제로 전 세계 26명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골관절염의 조기진단과 환자 맞춤형 치료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영월군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 펼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6월 18일 영월군을 찾아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김동일 한방병원장 외 교직원 30여 명과 쌍용C&E 영월공장 직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혈압, 혈당, 침, 물리치료 등 지역민 약 180명에게 맞춤형 진료를 시행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해 진료소를 찾기 어려운 고령의 어르신을 위해서는 직접 거주지까지 찾아가 진찰과 처방을 하는 가정방문 의료지원 서비스도 함께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멀리까지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교직원에게 감사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기회가 된다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의료지원 및 기금, 홍보부스 운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와 백담사 등에서 열린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전 일정에 참여하여 의료지원 및 기금 ·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세계 30여 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과 참가자 약 3,000여 명의 안전을 위해 23일 개막식부터 낙산사 회향 시까지 응급환자 의료지원과 기금모연,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의료지원은 낯선 환경에 적응중인 외국 스님들의 부스 방문이 많았고, 의료지원단은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하여 행사에 전념할 수 있는 치료에 중점을 두었다.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 홈페이지 새단장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7월 13일 새롭게 변화된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이는 환자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 다변화로 최신 기술 및 환경을 반영하고 모바일 환경에 맞춘 반응형 웹으로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및 인터넷 진료예약시스템을 재정비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진료 대기시간 감소 및 편의성을 도모했다.

정주호 병원장은 "새단장한 홈페이지로 의료진 및 병원 성과 등 홍보를 강화하고 진료예약 시스템으로 병원 이미지 제고 및 고객 중심의 변화하는 동국대학교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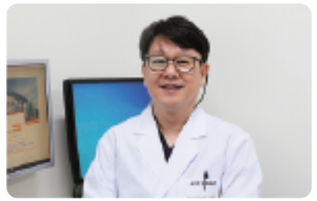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대한신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인공신장실 인증평가에서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을 획득했다.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제는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국제적 수준의 표준치료 제공과 혈액투석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구조(인력, 시설 및 장비, 수질검사) ▲과정(투석적 절도, 정기검사) ▲윤리성 및 회원의 의무(진료비, 교통통제, 환자유치, 광고) ▲의무기록 및 보고(등록사업, 의무기록, 환자보고) 등 4개 영역의 16개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 산부인과 김도균 교수 세계골반신경학회 임원 선출

산부인과 김도균 교수가 세계골반신경학회 임원으로 선출됐다. 세계골반신경학회는 20년간 골반신경학에 대해 연구한 Marc Possover와 그의 제자 및 구성원들이 모여 세계 최초로 창립하였으며, 골반신경을 통해 하반신 마비 환자의 치료 및 만성골반통, 골반 내 신경의 병변을 진단 및 치료, 연구하는 학회이다.
극동아시아 지역 유일한 대표로 선출된 산부인과 김도균 교수는 만성골반통, 하지 및 외음부 통증의 원인이 되는 골반 신경의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최초로 요추 및 흉추, 경추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환자의 자발적 보행 및 정상적인 배뇨를 위한 골반신경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 7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스위스 및 브라질 등에서는 약 130여 명의 하반신 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시행했고, 그 결과 70% 이상의 환자가 자발적인 보행을 하는 데 성공했다.



## 운문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의료지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운문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 경영지원팀 김태련 간호사를 파견하여 의료활동을 진행했다.
운문사는 국내 최대의 비구니 강원이 있는 곳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인성함양을 위해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정주호 병원장은 "부처님의 숨결이 담긴 운문사 여름불교학교에 지원한 아이들의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의료진을 파견함으로써 안심하고 재미있는 불교학교를 체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7월 29일 개막한 '2023 경주화랑청년 단편영화제'에도 의료진을 파견해 의료활동을 펼치고 왔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 직지사로 템플스테이 다녀와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불자회 마니회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8교구 본사 직지사로 교직원 템플스테이를 다녀왔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산사의 정취를 잘 느끼고 교직원들이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게 체험형 템플스테이로 진행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사찰 포행, 108배 및 염주 꿰기, 새벽 예불, 스님과 차담 등 다양한 불교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불교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다.
금동호 불자회장은 "마음 맞는 교직원과 함께 하는 소규모 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서단위 템플스테이 비용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많이 참여하여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컵등 나눔 행사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환우 쾌유를 기원하는 봉축 컵등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지도법사 보경스님의 지도로 각 부서별 참가 희망자들이 만든 봉축 컵등을 병원장과 지도법사, 불자회장이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전달했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불자회에서도 봉축 컵등 나눔 행사와 함께 교직원과 환우들을 위한 떡 공양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 동국대학교 의학계열 불교동아리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식 참석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불교동아리 '한마음'과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불교동아리 '심우회' 대표 학생들이 7월 6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에 참석하여 대학생 전법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다.
상월결사는 미래불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전국적 전법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역마다 지도법사, 지도교수, 대학생 전법위원을 위촉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에서는 지도법사 전법위원으로 동국대학교경주병원 혜능스님, 지도교수 전법위원으로 의과대학 이관, 황지영 교수, 한의과대학 김기욱, 김재은 교수가 위촉되었으며, 대학생 전법위원은 의학계열 학생 각 1명씩 위촉되었다.
앞으로 의학계열 전국 불교연합동아리를 창설을 위해 8월 중 13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를 계획하고 있으며 의학계열 전국 불교연합동아리를 간호대학, 보건대학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 의료봉사 및 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전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의 · 한의과대학 연합 '보리팀', 원효학술대회 토론 배틀 장려상 수상

동국대학교 의 · 한의과대학 연합 '보리팀'이 6월 경산 제석사에서 열린 제3회 원효학술대회 청년 무애 토론 배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무애(無碍) '원효, 청년을 말하다' 토론 배틀은 젊은 불자들의 불교사상을 교유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참가하고 주도하는 토론 배틀로 기획됐다.
토론 배틀 대상에는 해인사승가대학의 효나무두팀(성원스님, 진산스님), 우수상은 운문사승가대학의 우목맹구로팀(영원스님, 대겸스님), 장려상은 동국대학교 1기 건학장학생으로 이뤄진 연합 보리팀(의대 남건우, 한의대 김중일 학생)이 수상했다.

## 한의과대학 백승호 교수 · 학부생, 국제저널 'Antioxidants'에 게재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백승호 교수와 권세은, 정수민 학생의 공동 연구 논문이 SCIE 국제저널 'Antioxidants'에 게재되었다.
이번 논문은 '방사선과 온열요법의 병용요법, 시너지 항암 효과와 연구 동향에 집중'의 제목으로 권세은, 정수민 학생이 공동 제1저자, 백승호 교수가 교신저자로 Antioxidants 2023년 4월호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이뤘다.
'Antioxidants'는 피인용지수(학술잡지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7.675점, 분야별 학술잡지 순위(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가 상위 10% 내에 속하는 우수한 국제학술지이다.



나눔의 *gil*

# 보시공덕

7월 3일 **익명의 스님**이 발전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에 무주상보시를 실천하시는 법명을 밝히지 않은 어느 스님의 아름다운 회향에 감사드리며 늘 법체청안을 기원드린다.

대구 화성사 주지 **종묵스님**과 은사스님인 **혜성스님**은 지난 7월 10일 각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종묵스님은 최근에는 공양주도 없이 절 운영을 하면서 알뜰하게 모아온 정재 2천만 원을 선뜻 기부했다. 세납 91세로 노환으로 누워 계신 은사 혜성스님의 고귀한 뜻을 헤아려 회향해 주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대구 동화사 양진암 **원정스님**은 지난 7월 9일 약사도량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의 발전을 염원하며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적어서 미안하다며 미처 인사드릴 여가도 없이 쓰윽 내놓고 어느새 선방으로 참선 정진하러 가시는 스님의 뒷모습에 아직도 여운이 울림으로 남아 있다. 한편 이번 기부는 평소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을 위해 기부해온 도감 정묵스님의 기부 권선으로 이루어졌다.

대구 금용사 **혜선스님**은 지난 7월 11일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의 발전기금으로 2천만 원을 기부했다. 혜선스님은 동국대학교와 병원에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기부했고 현재까지 누적 금액이 6억여 원에 달한다.

안심사 총무 **박순금 보살님**은 지난 6월 7일 안심사 주지 **인득스님**과 함께 누적 기부액 3억을 채워야 한다며 230만 원을 추가 기부했다. 청양 안심사는 방생법회, 49재 등을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후원 행사로 열어 주지스님의 권선으로 신도님들도 동심1,3,5 정기기부 후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대구 화림원 주지 **신철스님**은 6월 19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발전기금으로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스님은 마지막 회향을 앞두고 평소 근검절약하여 모은 소중한 정재를 "불교종립병원인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이 발전하여 많은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청도 운문사 북대암 회주 **법춘스님**은 6월 18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했다. 법춘스님은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이 지역에서의 위상을 더 높이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 금련선원 **동일스님**은 6월 22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발전기금으로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스님은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고 한푼한푼 모아온 정재를 회향하며 "지역 내 좋은 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자비의료실천, 동국대학교병원을 일구는 힘

언제나 동국대학교병원을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기부자 | 기부액(원) |
|---|---|
| (재)법보선원 | 200,000,000 |
| 신철스님 | 50,000,000 |
| 혜선스님 | 20,000,000 |
| 동일스님 | 20,000,000 |
| 종묵스님 | 10,000,000 |
| 정견스님 | 10,000,000 |
| 법춘스님 | 10,000,000 |
| 원정스님 | 10,000,000 |
| 해성스님 | 10,000,000 |
| 박덕선 | 9,000,000 |
| 한국이씨엠㈜ | 5,150,000 |
| 운문사 사리암 | 5,000,000 |
| 지만스님 | 5,000,000 |
| 지홍스님 | 3,000,000 |
| 원종스님 | 3,000,000 |
| 홍순지 | 2,200,000 |
| 권정애 | 2,000,000 |
| 이애영 | 1,900,000 |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1,600,000 |
| 이명규 | 1,500,000 |
| 이선영 | 1,500,000 |
| 메디비 | 1,300,000 |
| 노명서 | 1,090,000 |
| 이우섭 | 1,030,000 |
| 각광스님 | 1,000,000 |
| 김도현 | 1,000,000 |
| 대학약국 | 1,000,000 |
|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 1,000,000 |
| 덕문스님 | 1,000,000 |
| 도과스님 | 1,000,000 |
| 영인스님 | 1,000,000 |
| 원명스님 | 1,000,000 |
| 일문스님 | 1,000,000 |
| 학교법인동국대학교 | 1,000,000 |
| 혜각스님 | 1,000,000 |
| 익명 | 1,000,000 |

100만원 미만 기부자

강가은 권해경 김상애 김정순 노경란 류대안 박은진 새한산업 신영애 원명스님 이미란 이재호 임윤정 정원기 지혜리 하순출 회운스님
강경민 권현숙 김상현 김정애 노영수 류봉하 박 인 서경자 신예솔 완선혜 이미수 이재환 임은순 정원스님 자혜스님 하유근 황귀자
강경임 권효정 김석자 김정애 노재욱 류은희 박일엽 서경진 신윤주 원용문 이미영 이정백 임재범 정유선 진경애 하윤경 황금자
강금주 권희재 김석호 김정예 노현숙 마의자 박재경 서로나눔 한의원 신은경 유광욱 이미영 이정숙 임종대 정윤정 진성스님 하일유통 황동현
강기선 근수스님 김선경 김정인 노현주 맹상희 박재근 신은재 유기순 이미영 이정순 임종설 정윤철 진성스님 하정희 황병선
강명숙 금묵스님 김선순 김정임 농협중도 매입1번 메스코 이엔지 박재영 서미경 신은희 유나메스 이미향 이정우 임종수 정은경 진순용 하준석 황설희
강명희 금오스님 김선조 김정혜 박재희 서미영 신은희 유리예 이미자 이정임 임춘선 정은영 진영숙 하준성 황성순
강석진 김가빈 김선주 김정호 능견스님 명주스님 박정기 서억수 신정순 유미숙 이미정 이정하 지이인트 정은자 진효재 하현지 황세연
강세연 김강림 김선희 김정훈 다 올 케이크 모성은 박정민 서연희 신정용 유병두 이병기 이정홍 파 마 정이선 차옥련 한광수 황수찬
강시우 김강태 김성경 김종대 모종은 박정애 서영문 신정훈 유소라 이병훈 이정화 장경란 정일스님 차행운 한구영 황영철
강영식 김강희 김성원 김종애 닥터필 한의원 묘희스님 박정화 서영진 신학녀 유영자 이보응 이정훈 장경미 정재우 창 공 한국메디칼푸드 황원진
강영아 김경숙 김성원 김주원 무관스님 박종숙 서영환 신현모 유영주 이상미 이정희 장남정 정재헌 채명연 황유경
강영애 김경순 김세민 김지수 대신문수 무구스님 박종학 서윤경 신형신 유유상 이상미 이종임 장대현 정재헌 채민규 한국에스웨이㈜ 황윤자
강은경 김경옥 김세희 김지연 대원스님 무이스님 박종현 서윤지 신혜경 유재일 이상범 이종철 장동철 정주스님 채봉희 현재영
강이일 김경택 김소원 김지영 대한불교 대승종 불국사 원 (이동재) 무진스님 박준엽 서 준 신희정 유정임 이상복 이종혁 장미란 정주호 채석래 한국전자금융㈜ 황정선
강인자 김경현 김솔아 김지예 무진스님 박준재 서준석 심규용 유주형 이상숙 이주은 장수인 정 준 채영주 황정수
강지영 김경호 김수경 김지원 문명모 박준형 서지은 심미나 유지영 이상순 이주현 장순자 정지우 채은미 한 독 황정희
강해성 김경호 김수성 김지현 문수영 박중택 서지혜 심스테크 유진메디텍㈜ 이상이 이주희 장양자 정진욱 채지원 한마음한의원 황창환
강혜진 김경희 김수연 김진섭 대한불교 조계종 백 령 사 문장우 박중희 서 찬 심영경 유창국 이상현 이준규 장영희 장진코퍼레이션㈜ 채차남 홍수스님
경원약국 김광기 김수정 김진엽 문진숙 박지숙 서희주 씨마㈜ 유하나 이서현 이준배 장윤정 정대권 최경연 한 영 외 다수 익명
경주농협 공 핀정 33번 김국현 김수헌 김진영 문진웅 박지인 선경스님 씨젠의료재단(재) 유근 이석례 이준형 장이순 정해인 최귀애 한광자
경주농협 하나로마트 김규빈 김숙경 김진영 대한불교 조계종 봉덕사 민상연 박채열 성보스님 아이웍스 육손운수 이석윤 이준화 장정주 정혁수 최규형 한유리
김규훈 김숙자 김진욱 민설희 박채희 성숙희 안대승 윤금섭 이선아 이지삼 장정화 정현주 최금례 한윤용
김균명 김숙현 김창기 대한불교 조계종 용주사 민성스님 박철근 성 심 안민아 윤동규 이선영 이지연 장정효 정현주 최길구 한윤희
경천에어테크 김근영 김순례 김 철 말엄스님 박철용 메디칼 안숙자 윤명희 이선희 이지영 장지인 정현주 최문전 한은숙
경 포 김근우 김순만 김춘동 박경석 박태현 성원석 안영길 윤민아 이세임 이지영 장충동왕족발 정혜은 최미경 한재석
김나령 김시연 김춘석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산원 박경선 박해련 성원스님 안인숙 윤민지 이소영 이지원 정혜인 최민석 한재필
계림운수 김남수 김신우 김춘화 대한불교 조계종 보현선원 박경희 박향미 성월스님 안정자 윤병하 이소정 이지현 장충섭 정화스님 최보운 한정훈
고금자 김남의 김아령 김치선 박경희 박현수 성은주 안주향 윤복연 이수림 이지호 장태영 정휴스님 최복필 한주아
고기환 김남일 김연화 김태규 대한불교 조계종 원적정사 박 관 박현숙 성진스님 안지은 윤수임 이수림 이진희 장호근 정휴스님 최삼보 한주형
고영희 김남희 김영남 김태련 박광욱 박현숙 성학스님 안현미 윤순선 이수임 이진희 전규상 정희재 최상돈 한학수
고완영 김남희 김영미 김태숙 대한불교 조계종 상 안 사 박다빈 박현정 성현스님 안희연 윤승현 이수철 이찬의 전난아 제민스님 최석재 한희정
고운박스 김다인 김영민 김태영 박대호 박현주 소선기 양순임 윤승환 이순란 이찬재 전동억 제승규 최성규 향조스님
고재영 김단혜 김영복 김태은 박동우 박현주 소연스님 양승엽 윤애경 이승덕 이채원 전숙진 제아람 최성록 해덕스님
고정희 김덕희 김영숙 김태희 대한불교 조계종 보현선원 박동재 박혜경 소은숙 양원준 윤영준 이승욱 이춘자 전순영 조경애 최성욱 해 솔
고지현 김도연 김영숙 김필자 박동진 박회상 소정자 양유리 윤은주 이승주 이충진 전용화 조경애 최소영 교육㈜
고채연 김도연 김영진 김하경 박동화 박효빈 소행연 양인숙 윤정미 이승철 이태헌 정경숙 조동삼 최순식 해 송 아구해물
고현스님 김도연 김영진 김한성 대한불교 조계종 전 태 종 대 광 사 박명곤 박효진 손경아 양지명 윤정희 이양노 이태현 정경숙 조미자 최영아
고현걸 김도연 김영진 김해옥 박명희 박후분 손귀득 어세준 윤지연 이양희 이하진 정경윤 조민주 최완우 행이스님
공병임 김도현 김영현 김해정 덕업스님 박미형 방동률 손명희 엄준필 윤춘순 이영미 이한나라 정경철 조민지 최왕열 허병철
공자윤 김동일 김영혜 김향숙 도경원 박미혜 배병문 손민표 염희경 윤현식 이영순 이한희 정근조 조복녀 최유림 허복순
곽범석 김동진 김영훈 김현경 도명스님 박상희 배병훈 손수원 에이씨케이㈜ 윤형근 이영애 이해원 정기남 조선미 최유안 허성희
곽수빈 김동하 김예경 김현서 도민스님 박서연 배상만 손익조 윤혜진 이영일 이향년 정기스님 조성만 최유정 허수인
구남이 김룬하 김옥선 김현정 도원스님 박서윤 배서영 손정은 엘에스스마트 윤효영 이영자 이향미 정길석 조수빈 최은정 허은경
구병수 김말숙 김옥수 김형석 박서현 배선영 손주연 은정스님 이영찬 이향지 정길형 조수정 최은희 허희진
구복심 김명선 김외자 김형수 도진스님 박선순 배수현 손주영 여현스님 이가원 이예린 이현북 정대군 조숙현 최은희 현담스님
구순점 김명숙 김용배 김형준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박선욱 배지현 손효숙 여휘경 이강현 이옥기 이현숙 정두라 조승호 최인영 현담스님
권경순 김명숙 김용숙 김혜숙 박성림 배진경 손효정 연지떡집 이강훈 이용우 이현주 정룡스님 조아광고 최인주 현대씨앤알㈜
권기업 김명숙 김용희 김혜정 박성미 백두진 손효진 염윤정 이경미 이용찬 이형경 정명환 조영선 최재율 현호영
권기현 김무종 김원교 김혜진 박성연 백범기 손희진 염주홍 이경미 이용필 이형성 정목스님 조영수 최정미 현재호
권나은 김문식 김원영 김혜진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박성우 백윤정 송국현 오동준 이경민 이우금 이혜숙 정미라 조윤복 최정민 현진스님
권대식 김문진 김윤평 김호준 박성운 백준엽 송동현 오미정 이경순 이우일 이혜인 정미라 조은경 최정숙 혜광스님
권도윤 김미경 김은미 김홍식 박성주 범선스님 송민관 오민희 이경임 이원상 이호준 정미선 조은영 최정화 혜능스님
권도화 김미경 김은숙 김환례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박성주 법륜스님 송보윤 오석한 이경택 이원천 이화선 정미자 조은주 최준용 혜능스님
권두경 김미경 김은영 김효연 박세진 법정스님 송은호 오성은 이경환 이유나 이 황 정석화 조응섭 최지원 혜륜스님
권명조 김미라 김은경 김효영 박세환 법천스님 송종길 오숙희 이경희 이유찬 이효정 정선이 조정아 최진영 혜연스님
권무성 김미선 김은정 김희영 동 국 의료기 박수연 변명희 수근스님 오신자 이구슬 이윤신 이희영 정수스님 조현성 최태호 혜정스님
권 민 김미숙 김은정 김희영 박수연 변명희 수근스님 오신자 이구슬 이윤신 이희영 정수스님 조현성 최태호 혜정스님
권범선 김미숙 김은주 김희예 박수연 변재욱 수 진 오외영 이나현 이은미 이희지 정수스님 조혜기 최한석 혜조스님
권병철 김미영 김은진 김희진 박수혁 보경스님 기업㈜ 오윤석 이남정 이은숙 인 공 정숙희 조혜진 최해송 혜철스님
권봉수 김미진 김은희 나경찬 동림떡집 박순득 보광스님 수완스님 오지윤 이내형 이은이 인승순 정숙희 조희군 최현정 홍민재
권삼숙 김미화 김의현 나옹용 동성스님 박순옥 보관스님 신경근 오지은 이다영 이은자 인준용 정승은 조희연 최혜성 홍민희
권선아 김민경 김이서 나 현 동 심 박신애 보관스님 신경민 오진숙 이다임 이은주 인 터 내셔날 정승택 종일스님 최효선 홍병식
권성욱 김민선 김이수 남세영 모금함 박애자 보광스님 신경수 오치훈 이도권 이은주 정승현 종후스님 최희숙 홍성남
권승윤 김민성 김익환 남순미 동성스님 박영석 보리수 신 광 오태용 이동규 이익수 메디스타 정심스님 좋은나라 최희원 홍성희
권오철 김민아 김인영 남안우 동의보감 한 의 원 박옥석 보림칼라 신 혁 꽃도매 오 혁 이동석 이인오 일청스님 정양임 주경식 최희정 홍승욱
권용태 김민준 김인자 남오승 박완임 본각스님 신대규 왕지혜 이동영 이인자 임경자 정여스님 주경희 카루니의 모 임 홍유실
권윤경 김병욱 김임숙 남유화 동진스님 박용래 부산두치 전 문 점 신동환 우덕스님 이동욱 이일수 임군일 정연분 주성채 홍은순
권윤정 김병환 김진충 남지형 두잉싸앤에스㈜ 박용수 신명진 우덕스님 이동현 이자경 임상기 정연화 주은명 탄정스님 홍은정
권일진 김복자 김정미 남현미 박원예 부안리 신복섭 우보스님 이명순 이자윤 임선희 정영숙 주혜스님 탄하스님 홍은희
권재구 김봉희 김정미 남현숙 디에스메디피아㈜ 박월희 부자유통 신석재 원 각 이명희 이재순 임수진 정영찬 죽림사 탄하스님 홍인스님
권준성 김삼기 김정배 남화연 박은동 삼양산업 신성준 원각사 이무화 이재연 임영숙 정옥남 지영호 태양떡집 홍주혜
권태용 김상규 김정섭 남환경 디아이랩 박은애 삼혜스님 신수연 원경스님 이문정 이재우 임영순 정옥희 지우스님 편일스님 홍태규
권태형 김상근 김정수 개 발 류경현 박은영 상오스님 신애랑 원명사 이문희 이재형 임윤성 정욱제 지일스님 하경임 홍호진

기간 : 2023. 5. 1. ~ 2023. 7. 31.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병원 대외협력홍보팀 031-961-90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국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대표자 :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료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일반 ☐ 불교계 ☐ 교직원 ☐ 기업/단체 ☐ 기타 ( )
☐ 동문 (입학년도 : 대학(원) : 전공 :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 ☐ 자택 ☐ 직장

**휴대폰번호** **유선전화**

## 약정

**약정액** 현금 원 (₩ ) ☐ 현물기부( 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 )원씩 / 총( )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병원 · 대학) 발전기금 ☐ 지정기금 ( 지정)
☐ 병원발전기금 ( □ 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 경주병원 □ 분당한방병원 )

## 납부방법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 일시납 ☐ 분납 ) 입금자명 :
☐ 동 국 대 학 교 일 산 병 원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학교일산병원(증축기금) ▶ 국민은행 778037-00-000347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 국 대 학 교 일 산 한 방 병 원 ▶ 국민은행 778001-00-059986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한의원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동 국 대 학 교 분 당 한 방 병 원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자동이체(CMS)** 출금일 : 매월( ) ☐ 1일 ☐ 18일 ☐ 25일 (총 원)
예금주 : ☐ 기부자와 같음 은행명 : 계좌번호 :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정보동의**

☐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수집목적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보유기간 : 5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효성에프앰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 후원자는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상기와 같이(효성에프앰에스㈜), 국세청(기부금 세제혜택 근거자료)동의합니다.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기부(약정)인 :** 서명(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절취선

•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1032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이메일 ▶hongbo@dumc.or.kr / 팩스 ▶031·961·9239
• **문 의** : 동국대학교병원 대외협력홍보팀 발전기금 담당 031·961·9000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2. 9. 1. ~ 2024. 8. 31.

고양일산우체국
제269호

gil good in life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이곳에 풀칠하세요.

절취선

나눔의 첫걸음,
동심 1·3·5와
함께 해주세요!

# 동심 1·3·5와 함께

동심 1·3·5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동국대학교병원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소액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동국대학교병원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同心 1 매월 1만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실천합니다!

기부자님이 보여주신 깊은 뜻과 넓은 마음을 새기어 생명 존중과 자비 의료를 실천하겠습니다.

## 東心 3 매월 3만원으로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기부자님의 나눔은 빛나는 동녘의 태양처럼 밝은 등불이 되어 건강하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 動心 5 매월 5만원으로 새롭게 성장해 갑니다!

기부자님의 관심과 격려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동국대학교병원의 성장 동력입니다.

-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진료, 연구, 교육, 저소득층 환자 지원 등 후원자가 지정하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게 됩니다.
- 후원은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하며 기부하신 후원금·자산·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월 정기기부 외에도 일시납으로 기부액에 상관없이 동심 1·3·5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자의 이름과 기부내용을 명패로 제작·등재하여 그 숭고한 뜻을 기념하며 진료비 감면, 전담 직원 안내 서비스 및 검진권 제공 등 맞춤형 진료 및 편의를 제공합니다. (후원금별 상이)

| 후원 기관 | 후원 문의 | 후원 계좌 | 예금주 |
|---|---|---|---|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tel 031. 961. 9000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 동국대학교일산병원(증축기금) | tel 031. 961. 9000 | 국민은행 778037-00-000347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 tel 031. 961. 9000 | 국민은행 778001-00-059986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 동국대학교경주병원·한의원 | tel 054. 770. 8130 | 우리은행 1005-202-076965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 tel 031. 710. 3712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

유튜브에서
동국대학교의료원을
검색하세요.

동국대학교의료원은 불교종립병원으로서
약사여래 십이대원의 숭고한 뜻을 실천하며
고객과 자비 중심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생로병사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으로
더 큰 치유 에너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